

노건평 씨 구속...검찰 남은 수사방향은

노-박-정 '삼각 커넥션' 실체?

(연차) (대근)

농협 보고서 작성 시점과 로비 연관성 규명  
노씨 휴켄스 인수개입 가능성 조사에도 무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가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를 구속하면서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가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태광실업 박연재 회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노씨와 박 회장, 그리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의 '삼각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종착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 세 명은 20년이 넘도록 친분 관계를 쌓아온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노씨는 박 회장과 1980년대부터 알고 지냈고 정 전 회장과는 삼각진농협조합장 1975~1988년)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친하게 지낸 '20년 지기'다.

박 회장과 정 전 회장은 모두 경남 밀양 출신으로 이들 역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를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내용은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던 정 전 회장이 2006년 1월 세종증권 인수를 확정했는데 정 전 회장이 노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박 회장을 통해 노씨가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내부정보를 흘려주고 박 회장은 실명·차명으로 주

식을 사들여 수개월 만에 178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노씨가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한 시기와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사들인 시기는 2005년 6월로 같고, 다음달인 7월에는 세종증권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적시한 농협 내부 보고서가 작성돼 검찰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 회장은 회사 확장을 위해 농협의 알짜배기 회사인 휴켄스를 인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

이 돈은 두 차례의 '핑퐁'을 거쳐 결국 박 회장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태광실업이 입찰가격보다 322억원 짝 값에 휴켄스를 인수함으로써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박 회장은 나아가 인수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휴켄스 주식 84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은 물론 차명으로도 사들여 1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 매매로 거둔 시세차익 가운데 50억원 이상과 휴켄스 주식 차명거래로 남긴 이익금이 휴켄스 인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노씨가 정 전 회장에게 "도와주라"고 말하는 등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노씨 회사로 알려진 정원토건이 2002년 박 회장 소유의 정산컨트리클럽 정 전 회장에게 "도와주라"고 말하는 등

2003년에는 박 회장이 건평씨 소유 별장을 10억원에 매입하는 등 두 사람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연합뉴스

"직불금 미신고 공직자 4,240명"

민주당 국정특위 "사실 은폐 공무원 엄중 처벌해야"

민주당은 4일 쌀 수매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이 2006년에 쌀 직불금을 본인이나 수령한 공무원이 1만703명이며, 이 중 39.6%인 4천 240명이 직불금 수령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우윤근, 최규성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28만3천47명)과 행안부의 공직자 자진신고 명단(6천463명)을 대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장했다.

공무원 직군별로는 검찰 공무원이 19명이 자진신고했으나 3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 공무원은 501명이 자진신고했으나 102명이 미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직불금 수령 사실을 은폐하려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

다"며 "2006년도에 부당수령 의혹을 가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미신고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안부가 제출한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자진신고자 명단 중 7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일부만 기재되는 등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특위는 5일 오전 농수산식품부를 방문, 관외경작자 중 부당수령자로 확인된 1만5천여명의 근거자료에 대해 문서 검증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 쌀 직불금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자현 상임고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연합' 신호탄 쏘나

민주당, '反MB 전선' 시민단체와 공조 본격화

민주당이 남북문제 대처를 위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손을 잡는데 이어 시민단체와의 공조도 본격화하고 있다.

수(數)의 열세를 극복하면서 대대적인 반(反) 이명박 정부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의원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제안한 '민주연합'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생민주국민회의는 4일 국회에서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이명박 정권

의 민생파탄에 맞서겠다"며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노당 권영길 의원총회 최귀원,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 등 정당 지도부와 청화스님, 진관스님,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사회 원로들도 참석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환율·물가인하 대책 집중 및 공공 서비스요금 동결을 비롯, ▲부동산세와 건설·부동산 부양정책 중단 및 시민단체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교육 조장 정책 철폐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방발달 정책 중단 ▲회계적 농가대책 수립 등 10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여야, 예산안·감세법 절충 실패

부가세 인하 새 쟁점 부상...예산안 협상은 오늘 재개키로

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조율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하지만 여야는 5일 오전 10시 예산안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막판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감세법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최대 쟁점은 부가가치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문제였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 민주당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자영업자들을 타깃으로 한 1조원 안팎의 지원으로 맞섰다.

중부세의 경우에도 세율이 쟁점이었다. 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하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3억원 기초공제와 함께

세율을 0.5~1.5%로 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1주택자의 3억원 공제를 허용할 경우 현행 세율(1~3%)을 유지하거나 공제없이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주장,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를 불과 닷새 앞두고 해에 예산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내(9일) 해에 예산안 처리'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여야간 갈등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파열됐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예산 관련 상임위를 총력 지지하기로 결정한 뒤 급히 예결특위 간사인 우재창 의원을 비롯한 의원 20여명으로 지지조를 편성, 예결소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회의 시작 전부터 소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위원자리를 점거한 뒤 '서민포기, 졸속부실, 부자감세, 지방 죽이기 예산철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 같은 절거상황은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시작하면서 끝났지만 이번엔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어 원내대표 간 협상 타결이 실패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인하"

한나라당은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안은 현행 1가구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되던 9~36%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양도세 인하 조치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반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별 교세관법검찰출교보보복소기. '09년 시험안내. 개강 12월15일(주)매일모임. 합격 회원 모집.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월15일 공개설명회. 새롭 행정고시학원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새롭 행정고시학원